

〈조사개요〉

1. 조사명

- 부산지역 수출 제조기업 VS 내수 제조기업 성과 비교

2. 조사목적

- 부산지역 수출 제조기업 및 내수 제조기업의 재무성과와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

3. 분석 대상

- 2023년 부산지역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제조업 외감법인 546개사 (수출 185개사, 내수 361개사)
 - : 수출기업은 2024년 수출액 백만 달러 이상인 기업 중 수출비중이 확인된 기업 185개사
 - * 수출 중심 기업은 수출기업 중에서도 수출 비중이 30% 이상인 기업 137개사
 - : 내수기업은 수출이 없거나 2024년 수출액 백만 달러 미만인 기업 361개사

4. 분석 방법

- 자료출처: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한국무역협회, 나이스신용평가, 한국기업데이터평가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자료 활용
- 분석지표: 재무 데이터(2019~2023년), 연구개발 조직(2025년 5월 기준)

5. 조사내용

- 부산 제조업 수출기업 현황
- 재무성과 및 연구개발 현황 비교 분석

6. 자료한계 및 고려사항

- 수출비중 관련 전체 자료 부재 및 일부 연구개발비 자료 미공개 등으로 인해 분석 결과가 제한적으로 도출될 수 있음

1 부산 수출 제조기업 현황 및 성과

1. 수출 제조기업 현황

□ 수출 제조기업의 74.1%가 수출 비중 30% 이상

-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별 기업수 분포로는 수출비중 50% 이상은 82개사(44.3%), 40% 대 32개사(17.3%), 30% 대 23개사(12.4%), 20% 대 14개사(7.6%), 20% 미만 34개사(18.4%)
- 수출비중 30% 이상 기업군은 매출액의 58.9%, 영업이익 70.4%를 차지
- 수출비중 20% 미만 기업군은 매출액의 16.5%, 영업이익 11.1%를 차지

< 수출 비중별 수출 제조기업 현황 >

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	기업수		매출액		영업이익	
	기업수	비중	매출액	비중	영업이익	비중
50% 이상	82	44.3%	113,786	43.3%	10,355	56.4%
40% 대	32	17.3%	28,057	10.7%	2,040	11.1%
30% 대	23	12.4%	12,810	4.9%	538	2.9%
20% 대	14	7.6%	64,781	24.7%	3,402	18.5%
20% 미만	34	18.4%	43,220	16.5%	2,036	11.1%
계	185	100.0%	262,653	100.0%	18,371	100.0%

* 주: 본 데이터는 전체 수출 제조기업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매출액 100억 원 및 수출 100만 달러 이상을 만족하는 제조기업 외감법인 321개사 중 수출 비중이 확인된 185개 기업을 중심으로 정리

* 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(2024),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2024), 부산상의 조사자료(2024), 나이스신용평가(2023), 단위: 억원

2. 수출 제조기업 성과

□ 수출비중이 클수록 수익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

- 업체당 영업이익은 수출비중 30% 이상 기업군이 94억원으로 수출 비중 20% 미만 기업군 60억원 대비 1.5배 이상 높고, 영업이익률도 각각 8.4%, 4.7%로 큰 차이를 나타냄
- 최근 5년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도 수출비중 30% 이상 기업군이

6.9%, 20% 미만 기업군은 5.5%로 나타나, 수출 중심 기업군이 매출 측면에서 다소 빠른 성장세를 보임

< 수출 비중별 수출 제조기업 재무성과 비교 >

구 분	업체당 매출액	업체당 영업이익	평균 영업이익률	매출액 CAGR (2019~2023)
수출비중 30% 이상	1,129	94	8.4%	6.9%
수출비중 20% 미만	1,271	60	4.7%	5.5%

* 주: 매출액, 영업이익, 영업이익률은 2023년 재무 실적 기준

* 자료: 나이스신용평가, 단위: 억 원

3. 수출 중심 기업의 성과

□ 매출규모가 클수록 성장성과 수익성이 두드러짐

- 수출비중 30% 이상인 수출 중심 제조기업들을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, 매출액 5,000억 원 이상 기업군의 최근 5년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(CAGR)은 7.1%, 영업이익은 14.5%를 기록하였으며, 매출액 1,000억 원 ~ 5,000억 원 미만 기업군의 CAGR은 매출액 7.9%, 영업이익 12.8%를 나타냄
- 이는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이익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
- 반면 500억 원 ~ 1,000억 원 미만과 500억 원 미만 기업군은 CAGR이 각각 4.9%와 4.3%, 영업이익은 8.9%와 10.1%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을 보임

< 수출 중심 제조기업 규모별 재무성과 비교 >

구 분	업체당 매출액	업체당 영업이익	평균 영업이익률	매출액 CAGR (2019~2023)	영업이익 CAGR (2019~2023)
5,000억원 이상	9,977	700	7.0%	7.1%	14.5%
1,000억 원 이상 ~ 5,000억원 미만	2,168	203	9.4%	7.9%	12.8%
500억 원 ~ 1,000억 원 미만	744	42	5.6%	4.9%	8.9%
500억 원 미만	272	23	8.5%	4.3%	10.1%

* 주: 수출비중 30% 이상 수출 중심 기업을 매출액 분류별로 정리, 매출액, 영업이익, 영업이익률은 2023년 재무 실적 기준

* 자료: 나이스신용평가, 단위: 억 원

2 수출 중심 기업과 내수기업 비교

1. 매출 성과

- 수출 중심 기업은 업체당 매출규모와 성장률에서 내수기업을 크게 상회
 - 총 매출액 규모는 수출 중심 기업 15조 4,653억 원과 내수기업 16조 509억 원으로 유사한 수준이나, 업체당 매출액은 수출 중심 기업이 1,129억 원, 내수기업 445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임
 - 최근 5년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수출 중심 기업이 6.9%로 내수기업 4.8% 대비 우위를 나타냄
 - 이는 수출 중심 기업이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

< 수출 중심 기업 VS 내수기업 매출 성과 비교 >

구 분	기업수	매출액	업체당 매출액	매출액 CAGR (2019~2023)
수출 중심 기업	137	154,653	1,129	6.9%
내수기업	361	160,509	445	4.8%

* 주: 수출 중심 기업은 수출비중 30% 이상 제조기업, 내수기업은 수출이 없거나 수출액 백만 달러 미만인 제조기업 2023년 재무 실적 기준

* 자료: 나이스신용평가(2023), 단위: 개사, 억 원

2. 영업이익 성과

- 수출 중심 기업, 내수 기업 대비 높은 수익성을 보여
 - 수출 중심 기업의 총 영업이익은 1조 2,934억 원으로 내수기업 6,581억 원 대비 2배 많음. 특히 업체당 영업이익은 수출 중심 기업이 94억 원, 내수기업은 18억 원으로 5.2배 차이
 - 영업이익률에서도 수출 중심 기업 8.4%, 내수기업 4.1%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높은 수익성을 보임
 - 이는 수출 중심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기반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높은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

- 반면, 최근 5년간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에서는 내수기업 14.6%로 수출 중심 기업 12.5% 보다 더 빠른 상승세를 나타냄
- 이는 내수기업이 수출 중심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초기 수익성이 낮아 성장 여력이 컸으며, 조선·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회복과 간접수출 증가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

< 수출 중심 기업 VS 내수기업 매출 성과 비교 >

구 분	기업수	영업이익	업체당 영업이익	평균 영업이익률	영업이익 CAGR (2019~2023)
수출 중심 기업	137	12,934	94	8.4%	12.5%
내수기업	361	6,581	18	4.1%	14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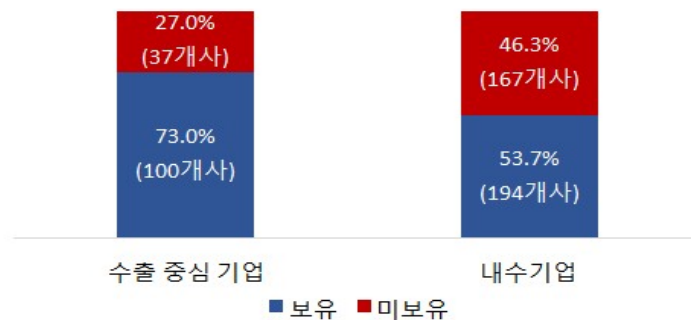
- * 주: 수출 중심 기업은 수출비중 30% 이상 제조기업, 내수기업은 수출이 없거나 수출액 백만 달러 미만인 제조기업 2023년 재무 실적 기준
- * 자료: 나이스신용평가(2023), 단위: 개사, 억 원

3. 연구개발 역량

□ 수출 중심 기업, 연구개발 조직 운영에서 내수기업 대비 뚜렷한 우위

-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연구개발 조직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, 수출 중심 기업의 73.0%가 연구개발조직을 운영하는 반면, 내수기업은 53.7%만이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
- : 수출 중심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 등을 위해 연구개발 조직을 적극 운영

연구개발전담조직 보유 현황 비교



- * 주: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한 기업
- * 자료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2025년 5월 9일 기준)

□ 수출 중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내수기업 대비 높아, 기술 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

- 수출 중심 기업의 총 연구개발비는 2,543억 원으로 내수기업 1,529억 원 대비 1.7배 많아, 규모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
- 수출 중심 기업 업체당 연구개발비는 19억 원으로 내수기업 4억 원 보다 4.8배 높아, 개별기업 단위에서도 투자 격차가 두드러짐
-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수출 중심 기업이 1.7%로 내수기업 1.0% 대비 0.7%p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수출 중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차별화 및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

< 수출 중심 기업 VS 내수기업 연구개발비 현황 분석 >

구 분	수출 중심 기업	내수기업	비고
총 연구개발비	2,543	1,529	
업체당 연구개발비	19	4	
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	1.7%	1.0%	

* 주: 2023년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. 자료 미공개 기업은 제외됨

* 자료: 나이스신용평가(2023), 단위: 억 원

3 주요 업종별 수출 중심 VS 내수 기업 비교

1. 자동차부품

□ 수출 중심 기업은 업체당 매출규모는 우위를 보이거나 성장률은 내수기업이 더 빠름

- 업체당 매출액은 수출 중심 기업 1,669억 원, 내수기업 598억 원으로 수출 중심 기업이 2.8배 높음. 이는 수출 중심 기업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

- 최근 5년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수출 중심 기업 5.0%, 내수기업 6.8%로 내수기업이 더 빠르게 성장. 이는 내수시장 내 완성차 수요 회복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

< 지역 자동차부품 수출 중심 VS 내수기업 매출성과 비교 >

구 분	기업수	매출액	업체당 매출액	매출액 CAGR (2019~2023)
수출 중심 기업	13	21,699	1,669	5.0%
내수기업	36	21,530	598	6.8%

* 주: 본 분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산업별 분류를 적용하였으며, 2023년 재무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됨

* 자료: 나이스신용평가(2023), 단위: 억 원

□ 수출 중심 기업은 총 영업이익과 수익성 모두 내수기업을 크게 상회. 다만 최근 5년간 수익성 개선 속도는 내수기업이 더 빠름

- 총 영업이익은 수출 중심 기업 1,874억 원, 내수기업 454억 원으로 4.1배 차이
- 업체당 영업이익은 수출 중심 기업 144억 원, 내수기업 13억 원으로 11.4배 차이
- 평균 영업이익률은 수출 중심 기업 8.6%, 내수기업 2.1%로 6.5%p 격차
- 이는 수출 중심 기업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고객 기반과 유리한 거래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반면 내수기업은 완성차 업체에 집중된 공급 구조로 인해 가격 결정권이 제한되고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
- 최근 5년간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은 수출 중심 기업 11.4%, 내수기업 19.9%로 내수기업이 더 빠르게 개선됨. 이는 내수 시장 회복 영향과 함께 낮은 초기 수익성으로 인한 개선효과가 크게 작용

< 지역 자동차부품 수출 중심 VS 내수기업 영업이익 성과 비교 >

구 분	기업수	영업이익	업체당 영업이익	평균 영업이익률	영업이익 CAGR (2019~2023)
수출 중심 기업	13	1,874	144	8.6%	11.4%
내수기업	36	454	13	2.1%	19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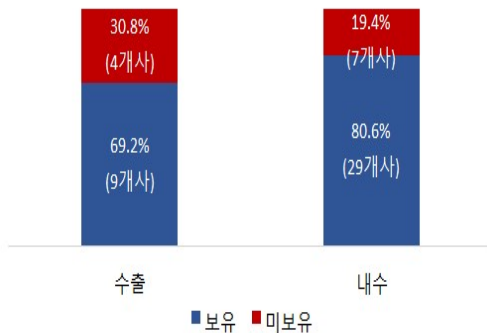
* 주: 본 분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산업별 분류를 적용하였으며, 2023년 재무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됨

* 자료: 나이스신용평가(2023), 단위: 억 원

□ 내수기업은 연구개발 조직 보유 비중에서 우위를 보이며, 수출 중심 기업은 업체당 연구개발 투자에 더 적극적

- 연구개발 조직 보유 비중은 내수기업 80.6%, 수출 중심 기업 69.2%로 내수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. 이는 내수시장에서도 완성차 업체 요구에 맞춘 기술 개발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
- 반면 업체당 연구개발비는 수출 중심 기업 27억 원, 내수기업 11억 원으로 수출 중심 기업이 2.4배 높음. 수출 중심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집중적 투자 전략
-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내수기업 1.9%, 수출 중심 기업 1.6%로 내수기업이 소폭 우위

자동차부품 연구개발전담조직 보유 현황 비교



< 자동차부품 수출 중심 기업 VS 내수기업 연구개발비 현황 분석 >

구 분	수출 중심 기업	내수기업
총 연구개발비	355	404
업체당 연구개발비	27	11
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	1.6%	1.9%

* 자료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2025년 5월 9일 기준), 나이스신용평가(2023), 단위: 억 원

2. 조선기자재

□ 수출 중심 기업은 매출규모와 성장률 모두 내수기업을 상회

- 총 매출액은 수출 중심 기업 18,553억 원, 내수기업 14,322억 원으로 수출 중심 기업이 1.3배 높음
- 업체당 매출액은 수출 중심 기업 807억 원, 내수기업 243억 원으로 3.3배 차이를 나타냄
- 최근 5년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수출 중심 기업이 7.8%로 내수기업 6.0%보다 빠르게 성장. 이는 신조선 수요 증가로 인해 중국·일본 등 주요 선박 제조국으로 수출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

< 지역 조선기자재 수출 중심 VS 내수기업 매출성과 비교 >

구 분	기업수	매출액	업체당 매출액	매출액 CAGR (2019~2023)
수출 중심 기업	23	18,553	807	7.8%
내수기업	59	14,322	243	6.0%

* 주: 본 분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산업별 분류를 적용하였으며, 2023년 재무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됨

* 자료: 나이스신용평가(2023), 단위: 억 원

□ 수출 중심 기업은 수익성에서 큰 우위를 보이거나, 최근 5년간 수익성 개선 속도는 내수기업이 커

- 총 영업이익은 수출 중심 기업 1,997억 원, 내수기업 901억 원으로 2.2배 차이
- 업체당 영업이익은 수출 중심 기업 87억 원, 내수기업 15억 원으로 5.7배 차이
- 평균 영업이익률은 수출 중심 기업 10.8%, 내수기업 6.3%로 4.5%p 격차
- 내수기업은 원청사 납품 구조에 따라 수익성 제약을 받는 반면, 수출 중심 기업은 독자적 기술력으로 고수익 구조 확보
- 최근 5년간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은 내수기업이 41.3%로 수출 중심 기업 6.0%를 크게 초과하였음. 이는 업황 회복으로 인한 신조 가격

상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. 또한 내수 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영업이익으로 인한 개선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

< 지역 조선기자재 수출 중심 VS 내수기업 영업이익 성과 비교 >

구 분	기업수	영업이익	업체당 영업이익	평균 영업이익률	영업이익 CAGR (2019~2023)
수출 중심 기업	23	1,997	87	10.8%	6.0%
내수기업	59	901	15	6.3%	41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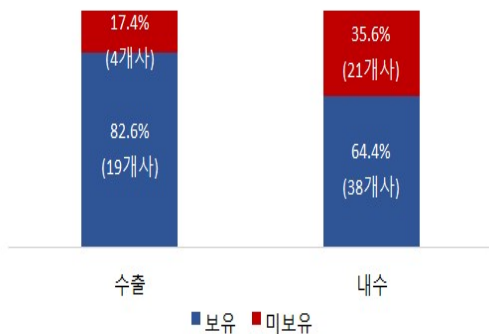
* 주: 본 분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산업별 분류를 적용하였으며, 2023년 재무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됨

* 자료: 나이스신용평가(2023), 단위: 억 원

□ 수출 중심 기업은 연구개발 조직 보유율, 투자 규모 등 모두 내수기업을 크게 상회하며, 기술 혁신 역량 확보에 적극적

- 연구개발 조직 보유 비중은 수출 중심 기업 82.6%, 내수기업 64.4%로 수출 중심 기업이 우위
- 업체당 연구개발비는 수출 중심 기업 20억 원, 내수기업 3억 원으로 6.2배 차이
-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수출 중심 기업 2.4%, 내수기업 1.3%로 1.1%p 차이
- 이처럼 수출 중심 기업은 친환경 기술 및 고부가 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

조선기자재 연구개발전담조직 보유 현황 비교



< 조선기자재 수출 중심 기업 VS 내수기업 연구개발비 현황 분석 >

구 분	수출 중심 기업	내수기업
총 연구개발비	454	189
업체당 연구개발비	20	3
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	2.4%	1.3%

* 자료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2025년 5월 9일 기준), 나이스신용평가(2023), 단위: 억 원

3. 철강

□ 수출 중심 기업의 업체당 매출은 우위를 보이나 최근 5년간 성장률은 내수기업이 앞섬

- 총 매출액은 내수기업 34,418억 원, 수출 중심 기업 24,623억 원으로 내수기업이 더 큼
- 업체당 매출액은 수출 중심 기업 1,448억 원, 내수기업 765억 원으로 수출 중심 기업이 1.9배 높음
- 최근 5년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수출 중심 기업이 4.8%로 내수기업 6.6%보다 빠르게 성장
- 내수기업은 중소형 가공업체 중심으로 생산량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이 가능했던 반면, 수출 중심 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안정적 구조를 유지하나, 수출 대상국의 쿼터제와 주요 경쟁국의 기술력 향상 등 외부 제약으로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제한됨

< 지역 철강 수출 중심 기업 VS 내수기업 매출성과 비교 >

구 분	기업수	매출액	업체당 매출액	매출액 CAGR (2019~2023)
수출 중심 기업	17	24,623	1,448	4.8%
내수기업	45	34,418	765	6.6%

* 주: 본 분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산업별 분류를 적용하였으며, 2023년 재무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됨

* 자료: 나이스신용평가(2023), 단위: 억 원

□ 수출 중심 기업의 수익성은 내수기업을 크게 상회

- 총 영업이익은 수출 중심 기업 3,750억 원, 내수기업 1,122억 원으로 3.3배 차이
- 업체당 영업이익은 221억 원, 내수기업 25억 원으로 8.8배 차이
- 평균 영업이익률은 수출 중심 기업 15.2%, 내수기업 3.3%로 12%p 격차
- 최근 5년간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은 수출 중심 기업이 16.3%로 내수 기업 14.8% 대비 소폭 우위

- 내수기업은 대형 제강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가격 변동에 취약한 구조인 반면, 수출 중심 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해 원자재 가격 영향 완화 및 수익성 확보

< 지역 철강 수출 중심 VS 내수기업 영업이익 성과 비교 >

구 분	기업수	영업이익	업체당 영업이익	평균 영업이익률	영업이익 CAGR (2019~2023)
수출 중심 기업	17	3,750	221	15.2%	16.3%
내수기업	45	1,122	25	3.3%	14.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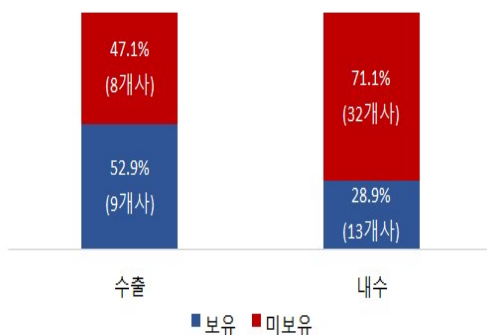
* 주: 본 분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및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산업별 분류를 적용하였으며, 2023년 재무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됨

* 자료: 나이스신용평가(2023), 단위: 억 원

□ 수출 중심 기업은 연구개발 조직 보유율, 투자 규모 등 모두 내수기업을 크게 상회

- 연구개발 조직 보유 비중은 수출 중심 기업 52.9%, 내수기업 28.9%로 수출 중심 기업이 큰 우위
- 업체당 연구개발비는 수출 중심 기업 7억 원, 내수기업 1억 원으로 5.6배 차이
-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수출 중심 기업 0.5%, 내수기업 0.2%로 0.3%p 차이
- 수출 중심 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 효율성 제고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 대응에 집중

철강 연구개발전담조직 보유 현황 비교



< 철강 수출 중심 기업 VS 내수기업 연구개발비 현황 분석 >

구 분	수출 중심 기업	내수기업
총 연구개발비	113	54
업체당 연구개발비	7	1
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	0.5%	0.2%

* 자료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2025년 5월 9일 기준), 나이스신용평가(2023), 단위: 억 원

※ 수출성과 해석의 논리적 한계

- 앞서 성과 비교 분석을 통해 수출 중심 기업이 내수기업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, 이러한 원인이 반드시 수출 여부에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. 기업의 규모, 제품 특성, 기존 경쟁력 등 다양한 선행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, 이를 통한 실증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함

4 시사점

- 수출 중심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은 재무성과를 유지
 - 매출액, 영업이익, 영업이익률, 업체당 매출 및 이익 등 모든 지표에서 내수기업 대비 월등한 수준을 기록
 - R&D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, 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장과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구축
 -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내 가격 결정권을 확보하고, 이를 기반으로 견고한 재무 구조 형성
- 내수기업은 최근 빠른 수익 성장세를 보였으나 구조적 한계 존재
 - 조선산업의 업황 회복 및 자동차산업 성장 등으로 최근 5년간 영업이익 증가율이 수출 중심 기업보다 높게 나타남
 - 다만 원청사 중심의 구매 구조로 인해 가격 결정권이 제한적이며, 이에 따라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취약
 - 하청납품형 구조의 특성상 경기 침체, 원청사의 수입 대체 추진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해 매출 변동성이 높은 편
 - R&D 투자 비중이 낮아 중장기적 기술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 큼. 특히 내수시장 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수익성 유지에 한계 발생 가능
- 수출잠재력을 지닌 내수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지원 필요

- 내수기업 중 글로벌 확장 잠재력을 지닌 내수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
- 내수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수이며,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 역량을 강화해야함
- 내수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
 - 내수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할 전용 R&D 세제 혜택, 자금 및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
 - 기술 혁신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및 정부 주도 연구개발 지원 강화
- 내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
 - 해외 판로 개척, 컨설팅, 국제 인증 지원 등을 통해 내수기업의 직접 수출 역량 강화
 - 이를 통해 국내 원청사 의존도를 낮추고 독립적 시장 경쟁력 확보

□ 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필요

-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정책 변화로 인해 철강, 자동차부품 등 지역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시장 접근 제한 우려
- 재무성과가 높은 수출기업의 피해는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,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
- 수출기업의 리스크 분산과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 요구됨
 - 통상 대응 컨설팅, 법률자문, 해외 인증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
 -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금융·보험·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확대
 - 공동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네트워크 및 민관 협의체 구축